

장기요양서비스 노인 주 부양가족의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 평가

이주영¹ · 김영애²

서울여자간호대학 전임강사¹, 부교수²

Relationship between Family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Caregiver

Lee, Joo Young¹ · Kim, Young Ae²

¹Full-time Instructor, ²Associate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of family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satisfaction among caregivers of the elderly. **Methods:** The study population were 126 caregivers of 5 elderly residing in institutionalized nursing homes in Seoul and Kyunggi. The research tool of this study was a structured questionnaire on family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3 to April 30, 2008, and analyzed by Cronbach's alpha,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the SPSS/WIN 14.0 program.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r=.65, p=.001$) was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support and satisfaction ($r=.68, p=.001$) was perceived.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ere Family Support, which explained 38.2% of the variance of Satisfaction of Elderly Caregiver.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we should develop programs and policie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caregivers for their family support. In conclusion, the study was done to give suggestions to improve caregiver satisfaction of the aged and to serve as a basis for policy strategies by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nursing facilities.

Key Words : Family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Satisfac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7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9%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도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장기요양서비

스가 요구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중풍 등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가족의 핵가족화, 장기노인환자의 요양기간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Lee, 2005).

보건복지가족부(2001)가 제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0.7%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에 해당되며, 요양시설 보호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노인인구의 2%인 점을 감안

주요어 :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

*이 논문은 서울여자간호대학 노인간호연구소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Joo You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287-89 Hongje-dong, Seodaemun-gu, Seoul 120-742, Korea.
Tel: 82-2-2287-1741, Fax: 82-2-395-8018, E-mail: daisy58@hanmail.net

투고일 : 2008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 2009년 3월 17일

할 때, 노인요양시설 수요와 수요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의 상대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부양의 부담이 주 부양가족들에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 내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되는 경우에 부양가족은 요양시설에 입원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환자에 대한 부양기능이 약화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된다(Joo, 2003). 노인환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 친지, 이웃 등의 지지체계가 감소되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제한과 부양의 책임이 가중된다(Amirkhanian & Wolf, 2003).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장기 입원으로 연결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감으로 나타나고(Suh & Oh, 1993)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환자를 부양하는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경험하는 역할과 부양의 책임은 가중된다(Oh, 2008). 이러한 부담감은 시설에 노인환자의 신체적 부양을 맡긴다고 해서 가족의 부담감이 완전히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Zarit, Todd, & Zarit, 1986). 가족이 인식하는 부담감은 부정적 경험으로 노인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Delmling & Bass, 1986). 가족 부담감 관련요인 연구들은 질병상태, 질병의 중증도와 불만족스런 서비스(Isabelle, Sophie, Pierre, & Bruno, 2003), 사회복지요양시설 이용(Lee, 2006), 성별과 교육수준(Lee et al., 1998), 전문인력 및 요양시설(Song & Choe, 2007) 등의 변수들로 이루어졌고,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 네 가지 개념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주 부양가족의 부담감은 건강문제를 발생하거나, 우울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통해 발생된다(Campbell, 2001).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형성되어 가족 부양부담감을 단순차원에서 제시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부양가족은 노인환자를 장기간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감소되고, 우울을 증가시켜 가족의 건강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Amirkhanian & Wolf, 2003).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Yates, Tennstedt와 Chang(1999)는 가족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노인환자를 간호하는 과정동안 발생하는 부담감 및 스트레스는 가족들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즉 부양가족의 노인환자 부양에 따른 스트레스 사건은 수발기간과 부양가족이 인지한 역할 과부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양가족의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환자를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돌

봐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과 부담감은 부양가족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mirkhanian & Wolf, 2003). 이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환자의 부양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회적 지지 접근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가족지지를 형성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부양가족의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간호중재 접근이 요구된다.

노인 환자를 돌봐야 하는 부양가족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소진과 갈등적 가족 관계, 감정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시 된다(Lee, 2002). 노인환자 및 가족 등이 겪게 되는 부양 부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식적·비공식적 가족의 지지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때 가족은 노인환자의 가장 주요하고 의미있는 지지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지지는 일차적인 부양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의 주 부양가족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며 부담감을 경감시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성공적인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장기요양서비스 간호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주 부양가족들의 만족도는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제공받게 되는 간호의 질에 따라서 전반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Farida & Jane, 2003). 만족도는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제공받는 간호와 긍정적인 건강관련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인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Castle, 2004). 또한, Noelker 등의 연구(Hwang, Yoon, & Kim, 2007에 인용됨)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시설 98%가 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제시된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가족부담감과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 변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실시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환자 주 부양가족들의 가족지지, 가족부담감, 우울, 만족도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주 부양가족의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 주 부양가족들이 인식하는 가족지지, 가족부담감,

우울, 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주 부양가족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내용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주 부양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지지, 가족부담감, 우울,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가족부담감, 우울, 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 주 부양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지지, 가족부담감, 우울,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주 부양가족의 만족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 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지지, 가족부담감, 우울, 만족도 정도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주 부양가족이며, 자료수집은 2008년 3월 13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노인요양시설의 각 기관장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각 요양시설의 담당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입원한 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 요양시설의 담당 간호사들은 가정으로 전화를 하거나 주 부양가족이 센터에 방문 시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요양시설 방문 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각 센터에서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수거하였다. 총 설문지 150부 중 13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26명(96.2%)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종교유무, 입원병실, 주 부양가족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가족 부담감

가족 부담감은 고령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부양의 결과로 형성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Jung, 2007), 본 연구에서는 Suh와 Oh(1993)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하위영역으로 경제, 사회, 신체, 정서, 의존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3)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사람과 지지의 교환이라는 주요기능을 하는 것으로(Choi, 1983), 본 연구에서는 Cobb(1976)가 개발한 도구를 Kang(1985)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4) 우울

우울은 스트레스-적응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과 함께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Batille, 1978), 본 연구에서는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노인우울도구를 Jung 등(1997)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예/아니오 양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다.

5) 만족도

만족도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에서 개발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는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주 부양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만족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13명으로 여성이 96명(68.3%), 남성은 20명(15.9%)이었다. 연령의 범위는 최소 50세에서 최대 80세 이상의 분포로 평균연령은 53.9세이었다. 도시근교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06명(84.1%)이었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10명(7.9%)이며, 대부분의 대상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병실 침상수는 1~3인실은 11명(8.8%)이며, 거의 대부분의 4인실 이상의 다인실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양가족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75명(59.5%)이며, 대졸 이상은 38명(30.2%)으로 나타났다. 주 부양가족은 자녀 46명(36.5%), 배우자 32명(25.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96 (63.9)
	Male	30 (36.1)
Age	50 ~ 59	60 (47.6)
	60 ~ 69	18 (14.3)
	70 ~ 79	22 (17.5)
	≥ 80	11 (8.7)
Location	Urban	106 (84.1)
	Rural	8 (6.4)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50 (39.7)
	Catholic christian	19 (15.1)
	Buddhist	23 (18.3)
	Won buddhist	3 (2.4)
	None	10 (7.9)
Beds	1 ~ 3	11 (8.8)
	≥ 4	97 (76.9)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75 (59.5)
	> High school	38 (30.2)
Caregiver	Children	46 (36.5)
	Spouse	32 (25.4)
	Others	11 (8.7)

2. 대상자의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정도

가족부담감은 평균 2.90 ± 0.51 , 가족지지는 평균 2.42 ± 0.38 , 우울은 평균 15.22 ± 1.38 이며, 만족도는 평균 2.17 ± 0.40 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26)

Variables	Min	Max	M ± SD
Care burden	1.67	4.29	2.9 ± 0.51
Family support	1.00	3.55	2.4 ± 0.38
Depression	6.12	28.00	15.2 ± 1.38
Satisfaction	1.00	3.73	2.1 ± 0.4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따라 가족부담감, 가족지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F=4.25$, $p<.05$)이 50~65세 보다는 66세 이상의 고령일수록 가족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F=3.96$, $p<.05$)은 66세 이상의 고령보다는 50세~65세 일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t=0.12$, $p<.001$)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병실 침상수($t=5.16$, $p<.001$)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1인실보다는 다인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우울($r=.65$, $p=.001$), 만족도($r=.68$,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주 부양가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만족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등의 3개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침상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개의 설명변인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요인)을 이용하였다. 그 결

Table 3. Difference of Care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Satisfaction by Characteristics

(N=126)

Variables	Characteristics	Care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Satisfaction	
		M ± SD	t or F	M ± SD	t or F	M ± SD	t or F	M ± SD	t or F
Sex	Female	2.92 ± 0.54	1.75	2.40 ± 0.41	0.05	4.51 ± 0.28	0.12*	2.02 ± 0.40	2.50
	Male	2.99 ± 0.42		2.43 ± 0.46		1.46 ± 0.73		2.00 ± 0.49	
Age (yr)	50 ~ 65 ^a	5.24 ± 0.81	4.25* a, b < c	6.53 ± 0.26	3.96* b, c < a	4.58 ± 0.84	0.75	4.74 ± 0.82	1.38
	66 ~ 75 ^b	6.61 ± 0.21		6.43 ± 0.95		6.12 ± 0.71		5.68 ± 0.89	
	> 75 ^c	6.87 ± 0.24		5.24 ± 0.73		6.41 ± 0.18		6.47 ± 0.69	
Location	Urban	2.94 ± 0.58	0.27	2.51 ± 0.41	0.11	4.80 ± 0.52	0.08	2.11 ± 0.43	0.08
	Rural	2.91 ± 0.51		2.42 ± 0.42		1.01 ± 0.22		2.20 ± 0.41	
Religion	Yes	2.99 ± 0.55	0.25	2.42 ± 0.36	0.05	2.75 ± 0.20	0.56	2.03 ± 0.43	0.24
	No	2.98 ± 0.45		2.39 ± 0.37		2.46 ± 0.25		1.90 ± 0.34	
Beds	1 ~ 3	2.79 ± 0.45	0.10	2.47 ± 0.73	0.69	2.16 ± 0.81	0.94	2.69 ± 0.72	5.16 [†]
	≥ 4	3.75 ± 0.75		2.53 ± 0.41		4.21 ± 0.46		2.79 ± 0.35	
Education	≤ High school	2.86 ± 0.49	0.91	2.40 ± 0.37	0.75	3.21 ± 0.84	2.03	2.15 ± 0.35	2.11
	> High school	2.95 ± 0.52		2.44 ± 0.46		2.11 ± 0.28		1.90 ± 0.43	
Caregiver	Children	3.06 ± 0.58	3.12	2.32 ± 0.45	1.13	3.21 ± 0.84	7.22	2.08 ± 0.46	2.11
	Spouse	2.88 ± 0.43		2.48 ± 0.41		2.56 ± 0.68		1.91 ± 0.43	
	Others	2.70 ± 0.45		2.45 ± 0.32		2.43 ± 0.61		1.99 ± 0.40	

* $p < .05$; [†] $p < .001$; Scheffe's test.**Table 4.** Correlation Matrix among Care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Satisfaction

(N=126)

	Care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Satisfaction
Care burden				
Family support	.04			
Depression	.25	.65 [†]		
Satisfaction	.00	.68 [†]	.34	

[†] $p < .001$.

과, 공차한계 값이 0.62~0.95, VIF는 1.28~1.93으로 나와 연구 변인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체 회귀모형에 대한 R^2 값은 .382($F=3.421$, $p<.00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변인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8.2%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지지($\beta=1.246$, $R^2=.21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부담감($\beta=0.484$, $R^2=.097$), 침상수($\beta=0.281$, $R^2=.06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의 주 부양가족의 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를 평가하여 부양가족의 만족도 관련요인을 이해하고 가족지지와 만족도를 증가할 수 있는 맞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N=126)

	β	t	R^2	F(Sig)
Family support	1.246	1.781	.218	.000
Care burden	0.484	1.573	.097	.001
Beds	0.281	0.624	.067	.001

 $R^2=.382$, $F=3.421$, $p=.000$

춤형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 부양가족의 가족부담감은 평균 2.90점으로 다소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 만성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Suh와 Oh(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 2.16보다는 높게 나왔다. 만성질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양가족 대상인 Suh와 Oh(1993)연구와 본 연구의 요양시설에

입원한 부양가족간의 대상자 차이에 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양시설을 이용의사가 있는 부양가족 집단은 간병능력이 취약한 노부부끼리 사는 경우와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환자를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제시한 Choi(199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배우자 역시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환자를 부양하고 돌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감이 다른 가족에 비해 높지 않았는가 사료된다. 주 부양가족의 특성의 의해 유발되었을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지지는 노인과 사회지지 체계 망을 형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힘(Choi, Kim, & Kim, 2003)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 2.42점으로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와 Choi, Kim과 Kim(2003)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문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주요한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Zarit, Todd, & Zarit, 1986).

만족도는 요양시설에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서비스계획과 실시, 서비스 안내, 표준적 서비스 수준 확보, 간호 및 재활서비스, 서비스 환경, 이용자권리 보호 등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1). 만족도는 평균 2.17점으로 선행결과(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1)와 동일한 결과양상을 보였다. 부양가족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의 특징, 주 부양가족의 특징, 서비스 관련요인 등으로 제시한 선행연구결과(Lee, 2002)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거주지역, 종교 유무, 학력, 주 부양가족 특성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과 입원병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연령은 가족부담감에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50~65세보다는 66세 이상의 고령일수록 가족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Song & Choe,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 부부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증가될 것이라는 인구학적 예측(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7)에 따라 간병능력이 취약한 노부부끼리만 사는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 측정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원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병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Fitting, Robins, Lucas와 Eastham(1986)과 Lee(2005)

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냈다. 부양가족의 성에 따라 부담감 정도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수발할 때가 부인이 남편을 수발하는 경우보다 부담을 덜 느끼며, 우울 정도도 낮은 것으로 Zarit, Todd와 Zarit(198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성 치매나 뇌졸중 등의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장기간의 부양을 필요로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질환의 증세는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시설에 노인환자의 신체적 부양을 맡긴다고 해서 가족의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 부양가족은 부양하는 동안 우울, 소외감, 소진 등 정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환자의 오랜 질병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부담과 갈등이 컸을 것으로 생각되며 스스로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부양가족에게는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의 부양가족의 우울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체계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원한 부양가족의 만족도 측정은 요양시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요소이며, 부양가족의 요양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변인이라 볼 수 있다(Fisher, 1997). 만족도는 입원병실의 침상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실보다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적인 다인실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만족도는 가족의 지지정도가 돈독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는데 입원노인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지지는 유사 연구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웠으나, 이러한 결과는 입원노인을 돌보는 것이 지속적이면서 집중적인 보호, 원조를 제공해야 하고 상당한 체력과 가족의 지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환자를 요양시설에 맡기고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주 방문할 수 있으나 거리가 멀수록 방문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 가족지지가 높은 부양가족은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나 가족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부양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지 스트레스 관리방법, 가족구성원간의 지지와 배려로 지혜로운 역할분담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주 부양가족들의 부양의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지지를 강화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간호중재가 요구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지지 및 우울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구축망

체계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주 부양가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가족지지, 가족부담감, 침상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결과가 없어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부양가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볼 때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한 주 부양가족들의 부담감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련요인으로 발생되며, 요인을 이해하고,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우울을 관리 및 예방하고 가족지지를 기반으로 한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환자 주 부양가족들의 부담감, 가족지지 그리고 우울, 만족도를 평가하여 이들의 만족도와 가족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일 노인요양시설로 제한되었고,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전체 요양시설 입원한 노인 주 부양가족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음을 제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의 주 부양가족이 경험하는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만족도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이신 노인환자 주 부양가족 126명 대상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3월 13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만족도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부담감은 평균 2.90 ± 0.51 , 가족지지는 2.42 ± 0.38 , 우울은 15.22 ± 1.38 , 만족도는 2.17 ± 0.40 이었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부양가족들의 가족부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F=4.25$, $p<.05$)이며, 가족지지는 연령($F=3.96$, $p<.05$)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성별($t=0.12$,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만족도는 입원병실 침상수($t=5.16$,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가족부담감, 가족지지, 우울,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는 가족지지와 우울 간에 정적 상관관계($r=.65$, $p=.001$)가 있었고, 가족지지와 만족도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r=.6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 부양가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38.2%이었으며 회귀식은 유의했다($F=3.421$, $p=.000$). 그중 특히 주부양가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였고, 그 다음으로 가족부담감, 침상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주 부양가족들의 가족부담감을 이해하고 가족지지를 고려할 수 있는 맞춤형 간호중재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과 주 부양가족들의 가족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서비스와 정부정책과 맞물려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요양시설에 입소한 주 부양가족 126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추후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련하여 주 부양가족들과 노인환자들의 만족도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심층적인 가족지지와 우울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

REFERENCES

- Amirkhanyan, A., & Wolf, D. (2003). Caregiver stress and non-caregiver stress: Exploring the pathways of psychiatric morbidity. *The Gerontologist*, 43(6), 817-827.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 Report*, 42, 745-746.
- Campbell, R. L. (2001). *Predictors of caregiver burden over a three month period following hospitalization of the patient*. A dissertation in nursing,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Castle, N. (2004). Family satisfaction with nursing facility care.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16(6), 483-489.
- Choi, E. Y., Kim, J. Y., & Kim, H. S. (2003). The correlational study on health-promoting behavior,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support of elderly peopl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5(1), 7-16.
- Choi, H. G. (1995). Factors related to family caregive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home after placement of a elderly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Society Welfare Studies*, 2(2), 164-180.
- Choi, Y. H. (1983).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on family support behavior and sick role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Delmling, G. T., & Bass, D. M. (1986). Symptoms of mental impairment among elderly adults and their effects on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1(6), 778-784.
- Farida, K. E., Jane, K. S., Kathleen, F. M., & Shobhana, S. M.

- (2003). Developing a satisfaction survey for families of ohio's nursing home residents. *The Gerontol Society America*, 43(4), 447-458.
- Fisher, C. (1997). Sleuthing for clues: Providers use satisfaction surveys to uncover activities and services residents need and want. *Provider*, 23(9), 30-36.
- Fitting, M., Robins, P., Lucas, M. J., & Eastham, J. (1986).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s: A comparison of husbands and wives. *The Gerontologist*, 26(3), 248-252.
- Hwang, I. O., Yoon, K. A., & Kim, E. K. (2007). A study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of the aged in nursing facilities and affective factors. *Journal of Korean Gerontol Society*, 27(4), 847-860.
- Isabelle, G., Sophie, D., Pierre, G., & Bruno, F. (2003). Regular visitors are not good substitutes for assessment of elderly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home care and service. *Journal of Gerontology*, 58a(11), 1036-1041.
- Joo, B. A. (2003). *The relationship among dependencies of care recipients and coping resour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careg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Jung, I. K., Kwak, D. I., Joe, S. H., & Lee, H. S. (1997). A study of standardization of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1(1), 61-72.
- Jung, Y. J. (2007). *The research on the physical and mental burdens of the main supporters with senile dementia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
- Kang, H. S. (1985).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reinforcement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on hemiplegia patients' self-car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7, November). *Population growth rate, population structure, dependency ratio, index of aging, median age, mean Age(National)*. <http://www.kosis.kr>.
- Lee, H. J. (2006). The effect of caregiver's burden for the dementia elderly by the use of daycare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26(2), 329-346.
- Lee, I. J. (2002).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family caregivers in adult day car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22(1), 93-114.
- Lee, J. Y. (2005).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scale of the korean long term care hospital elderly inpati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Y. H., Gang, T. M., Lee, S. S., Kim, M. G., Ahn, D. S., Yoon, S. H., et al. (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ing burdens of caregivers and the psychopathology of in-home demented elderlies, and the needs of caregivers for the social service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iation*, 37(6), 1292-1305.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1). *Accreditation and management consulting to social service agencies*.
-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5). Seoul Welfare Foundation.
- Song, M. Y., & Choe, G. G. (2007). Buffering effects community-based service on primary care-giver's burden for senile dementia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27(4), 987-1014.
- Suh, M. H., & Oh, K. S. (1993). A study of well-being in caregivers caring for chronically ill family memb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3(3), 467-484.
- Yates, M. E., Tennstedt, S., & Chang, B. (1999). Contributors to and media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informal caregiver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B, 12-22.
- Yesavage, J. A., Brink, T. L., & Rose, T. L.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Psychiatric Research*, 17, 37-49.
- Zarit, S. H., Todd, P. A., & Zarit, J. M. (1986). Subjective burden of husbands and wives as caregiver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26(3), 260-266.